

※ 미사 안내 ※			 동백성마리아성당 (우)1699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8로 151 http://db.casuwon.or.kr	주임신부 문상운(알베르토) 총 회 장 이학구(빈첸시오) 연령회장 박희숙(올리엠타) 010-6288-4311 사 무 실 031-286-1175 F A X 031-286-1141	
평일	월	06:30			
	화 / 목	19:30			
	수 / 금	10:00			
	첫토(성모산삼)	10:00			
주일	토	청 년 19:30			
	교 중 11:00				
	어린이 16:00				
	청소년 19:00				



▣ 특별헌금(2차헌금)안내 ▣

👉 이번 주 2월 2일 - 사제양성

+ 미사, 전례, 성사

■ 2월 첫 주간 전례 안내

- 성시간 : 2월 6일(목) 19:30 (매월 첫 목)

■ 2월 병자 영성체 안내

- 일시 : 2월 7일(금) 오전 11시
- 신청 기한 : 2월 5일(수) (지역장, 사무실 문의)

+ 교육, 피정, 행사

■ 초/중/고 주일학교 등록 안내 (QR 스캔 신청)

구 분	대 상	개 강	등록비	신청
• 초 등 부	7세~초6	3/2(주일) 16:00	5만원	
• 중고등부	중1~고3	3/2(주일) 19:00	5만원	
• 첫영성체 (6/22)	초3~초6	첫모임(OT) 2/23(주일) 17:10	10만원 (등록비포함)	

- ※ 신청기한 : 초/중/고(2/23일까지), 첫영성체(2/16일까지)
- ※ 초중고 세자녀 등록 시, 셋째 자녀 등록비 무료
- ※ 첫 영성체만 신청자는 첫 영성체 반으로 한 번만 신청
- ※ 문의:초등부(010-8972-2571)/중고등부(010-9261-7244)

■ 재의 수요일 미사 안내

- 일시 : 3월 5일(수) 오전 10시, 저녁 7시 30분

※ '재의 수요일'은 사순시기의 시작을 알리며 이 날 미사에서는 참회의 상징으로 축성된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합니다.

+ 기타 공지

■ 2025년 교무금 책정 안내

- 교무금은 교회에 공적으로 봉헌하는 예물로 가톨릭 신자의 의무이며, 교회 운영, 유지, 사목활동을 비롯해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데 쓰입니다.

※ 계좌이체나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하시는 가정에서도 사무실에서 2025년도 교무금을 책정 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지 가지 회수 안내(2월23일 주일 까지)

- 각 가정에 보관 중인 성지(聖枝)가지를 성당 로비 수거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비닐봉투 제거 후)

■ 월례회의 및 단체 회합 안내

• 헌화회	2월 4일(화)	10:00
• 선교분과	2월 5일(수)	19:00
• 청소년분과	2월 9일(일)	17:00
• 소공동체 지역장	2월 12일(수)	19:00
• 전례분과	2월 13일(목)	미사후
• 교육분과	2월 13일(목)	미사후
• 시설재정분과	2월 16일(일)	15:00
• 초등복사단	2월 16일(일)	17:00

■ 교중 미사 전례 및 청소 봉사

전 려		청 소	
2/2 (일)	7지역(3)	2/1 (토)	2지역
2/9 (일)	8지역(1)	2/8 (토)	3지역

- 지난주 봉사해 주신 교우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전출 교우

♥ 안녕히 가십시오 ♥

성 명	이전 주소	가는곳본당
정석현 요 셉	서해1100	수원/상하
문경무 프란치스코	월드1600	수원/능평

"제대꽃" 봉헌 받습니다.

동백성마리아성당 신협 131-021-925324

교무금 계좌 : 우리은행 1005-601-858011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책정자명/세례명 기입)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말라키 3,1)

2025년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

간지 제730호

+ 우리들의 정성 【1월 20일(월) ~ 1월 23일(목) * 4일간(월~목) 납부현황 입니다.(설명절로 조정)

주님 봉헌 축일(제대초) / 4명		70,000원			
교 무 금 1,780,000원	강민주 스텔라	문인화 베로니카	송재준 암브로시오	정순덕 데레사	
	강인구 라파엘	문장용 베드로	안혜영 요셉피나	조인선 스테파노	
	김기은 올리아	박덕수 요셉	윤웅 클라디오	조인수 바오로	
	김미숙 마리아	박서영 아델라이드	이경선 데레사	최금분 누갈다	
	김수환 스테파노	박준영 사도요한	이미경 소피아	허옥 스테파노	
	김헌제 노	소준 바오로	이영례 로사리아		
	김형자 레지나	손완기 요한	정광호 마태오		
감사헌금	윤웅 클라디오	1,000,000	이미경 소피아	100,000	
제대꽃	함영택 바오로	50,000			
성소후원금	손옥란 미카엘라	10,000			

본당 부채 현황(교구 차입금·토지)	금주 토지·건축 봉헌금	본당 부채상환 적립금
1,000,000,000원	0원	400,000원

♡ 봉헌해 주신 신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간지 교리

◆ 희년(禧年, year of jubilee, jubilaum)

신자들이 하느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해. 성년(聖年)이라고 한다.

2000년 대희년, 2015년 자비의 특별희년, 그리고 2018년 한국 평신도 희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양한 희년을 지내왔다. 희년을 한자의 의미만을 생각해, 그저 어떠한 것을 특별히 기념하는 '복된 해'라고 여길 수도 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희년의 본래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 해가 왜 복된지를 알 필요가 있다. 신자들이 구원과 해방을 위해 회개해 죄를 용서받고 벌을 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정된 해이기 때문이다.

희년의 기원은 구약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바빌론 유배 전 유대인들은 모세의 법에 따라 50년마다 한 번씩 숫양의 뿔 모양을 한 '요벨'이라는 나팔을 불며 1년에 걸친 축제를 거행했다. 바로 이 요벨이 희년의 라틴어 '유빌레 움'(jubilaum)의 어원이다.

구약의 희년은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을 7번 지낸 49년의 다음 해 즉 50년이 되는 해에 지낸 축제다. 희년은 빚을 진 사람들이 모든 빚을 탕감받고, 노예들이 해방돼 자유를 얻는 해였다. 구약의 희년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와서 하느님께로 돌아간다는 정신을 상기시켰다.

오늘날의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는다. 예수님은 나자렛 회당에서 희년에 관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고 선포했다. 구약의 희년이 '하느님께로 돌아간다'는 정신을 물질적 차원에서 실현하고자 했다면, 오늘날의 희년은 영성적 차원에서 이를 실천한다. 희년 동안은 전대사가 선포돼 신자들은 교황이 정한 조건과 순례 등을 통해 고해성사에 참여하고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보니파시오 8세 교황은 1300년을 희년으로 선포했는데, 이 해가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희년의 시작이다. 처음엔 100년을 주기로 희년을 지내다, 1470년 부터는 25년 주기로 '정기 희년'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 희년을 지내는데, '자비의 특별희년'이 이에 해당한다.